

〈2011년도 한국사료협회 정기총회 소식〉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

제30대 회장에 현 조남조 회장 만장일치로 재추대

부회장에는 (주)한국축산의희망 서울사료 장원철 사장과 대한제당(주) 양창근 사료BU장 선임

김남훈 전무이사도 유임



▲ 총회 전경사진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월 22일 전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회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사료 생산량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35억 7,300만원으로 긴축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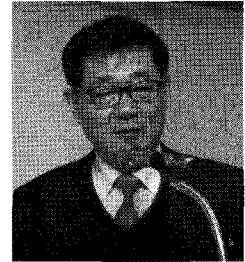
▲ 조남조 회장



▲ 장원철 부회장



▲ 양창근 부회장



▲ 김남훈 전무이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조남조 현 회장을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제30대 한국사료협회장에 재추대했다. 조회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정치부장, 제11, 12대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산림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부회장에는 (주)한국축산의희망 서울사료 장원철 부회장을 유임 시켰으며, 대한제당 (주) 양창근 사료BU장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전무이사에는 현 김남훈 전무이사를 유 임시켰다.

감사에는 대주산업(주)와 탐라사료(주)를 각각 선임하고, 이사에는 고려산업(주), 두산생물 자원(주), 동아원(주), 대한사료(주), 부국사료(주), (주)삼양사, 서부사료(주), CJ제일제당, (주)우 성사료, 제일사료(주), 중앙축산사료(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주)케이씨피드, 한일사료(주), 현대사료(주), 흥성사료(주)를 변경 없이 유임시켰다.

한편 이날 재추대된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저를 만장일치로 재 선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금년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때 이므로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회원사와 협회가 혼연일체 되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 뒤 “회원사의 이익실현을 위해 무한 봉사정신에 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안 업무에만 몰두하지 않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협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